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② - 서울 삼보선원

자부심이 대단했다. 첫 출발 때부터였다. 당대 선지식 성철, 청담 스님이 백성욱 서둔각 홍정식 거사 등의 걸출한 석학과 함께 1964년 창립한 '삼보장학회'가 삼보선원의 모태였기에 그렇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 간화선종을 드

날린 성철 스님 등의 '봉암사결사' 정신을 도심 한복판에 지금까지 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긍심은 남달랐다. 3월 22일, 서울 정릉에 자리 잡은 삼보선원을 찾았다.

‘성철·청담 정신’ 오롯이 지킨다

치열한 선문답으로 공부점검

삼보선원 3층 선방. 백발이 성성한 이정화 씨(90·광명자)가 문답을 한다. “매일 새벽 6시 집에서 갖는 참선 시간은 늘 마음을 후련하게 만들어요. 오운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 나를 잃을 수 있더군요. ‘이랬고’ 화두도 잘 들리고요.”

20년 전, 인천 송화사 송담 스님에게 ‘이랬고’ 화두를 받은 이 씨. 참선 시간이면 번뇌 망상이 저절로 없어지는 경험을 한다고 말한다.

“맞아요. 수행은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이뤄져요. 꼭 막히는 데에서 공부되거든요.”

삼보선원 초대 이사장을 지낸 조호정 씨(69·관해)가 말을 받는다.

구차자들간 문답은 이처럼 서로의 안목을 드러내며 공부 필립이를 점검해준다. 때론 치열한 선문답도 오가지만,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다. 30년 넘게 같은 죽비소리에 가부좌를 틀어온 도반들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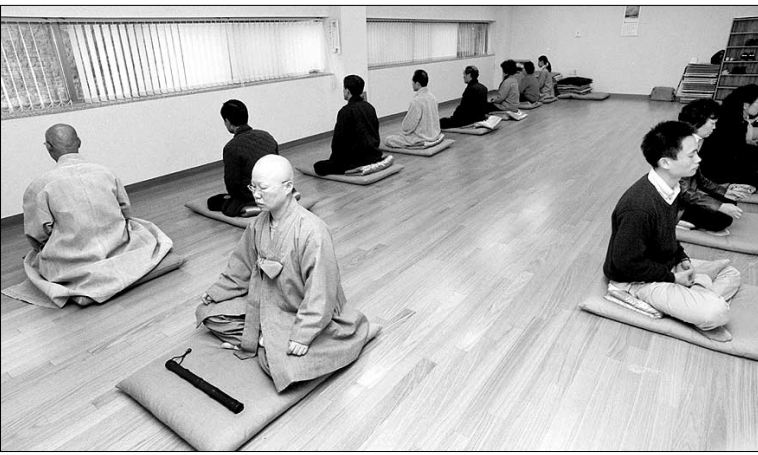
삼보선원은 1995년 개원했다. 얼핏 보면 역사가 짧아 보이지만, 그 전신은 1984년 시민선방에서 비롯된다.

그간 거쳐 간 재가선객들도 많다. 삼보선원의 전신인 삼보법회를 창립한 이한상 거사대 비롯해 선도회 지도법사 박영재 서강대 교수와 권영두 거사 등 쟁쟁한 재가선객들이 이곳에서 공부를 했다.

‘부처님 법대로’ 지향

삼보선원이 주창하는 수행정신은 ‘봉암사 결사’에 있다. 지난 1947년 성철, 청담, 자운, 우봉 스님이 ‘부처님 법대로 살며 수행하자’는 원력을 세우고 문경 봉암사에서 결사한 이 수행운동을 삼보선원은 근본이념으로 삼는다. 지난 1995년 시민선방을 삼보선원으로 명칭을 전환할 때, 봉암결사에 참여했던 前 조계종 종정 해암 스님을 증명법사로 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삼보선원이 이처럼 봉암결사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봉암결사를 주도한 성철, 청담 스님이 삼보회 전신인 삼보장학회 설립을 선도했기에 그렇다.



서울 정릉 삼보선원 불자들이 3월 22일 선방에서 참선 정진을 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걸출한 재가 선객 배출...1대1 점검 경전·선어록 공부와 참선 함께 진행

삼보선원이 재가선원이지만 그 원력이 큰 까닭이 여기에 있다.

‘독경+참선’ 통해 선지(禪旨) 밝힌다

삼보선원 수행프로그램의 특징은 ‘독경+참선’에 있다. 이는 먼저 선지(禪旨) 법문이 오롯이 담긴 경전과 선어록 등을 먼저 배우고 참선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육조단경> <달마철맥론> <벽암록> <이입사행론> 등이 강의됐다. 현재는 매주 일요일에 <화엄경> <법구경> <사십이장경> 등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동국대 박경준, 정병조 교수 등이 강의를 맡고 있다.

삼보선원의 특징은 무엇보다 1대1 지도점검에 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반

부터 2시간 정도 좌선과 개인점검인 입실지도(入室指導)를 하고 있다.

입실지도는 초대 종달 이희익(선도회 창립자) 거사에 이어 97년 8월부터 정경문(62) 거사가, 선도회 최고령자인 권영두(76) 거사는 입승 소임을 맡고 있다.

특히 최근 수석사 해암 스님의 제자인 청봉 스님을 지도법사로 추대해 체계적인 수행지도도를 하고 있다. 화두 점검은 매주 일요일(오후2시~4시)과 화·목·토요일(오후4시 30분~5시 30분)에 진행된다. (02)913-2859, www.sambo buddha.org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초기불교와 아비담마’ 특강

각목스님, 4월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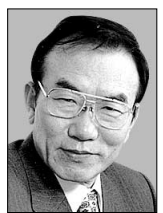
최근 선우논쟁에서 ‘초기불교수행법은 분석적 해체, 간화선은 직관적 통찰에 있다’고 주장한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목 스님(사진)이 오는 4월 13일부터 12주 간 울산불교교육대학에서 ‘초기불교와 아비담마’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9시.

특강은 초기불교의 요체와 수행을 비롯해 △초기불교와 아비담마(분석과 해체) △마음이란 무엇인가 △입과 윤회와 세계 △왜 초기불교와 아비담마인가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특강에는 또 질의응답과 ‘사념처관’을 직접 실증하는 시간이 마련돼 초기불교수행법에 관심 있는 불자들에게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52)271-8579 김철우 기자

“명상하면 뇌활동 활발해진다”

안의대 순천향의대 교수, 세계 뇌학회서



“명상은 뇌의 활동을 제어할 수 있다.” 2005 세계 뇌주간을 맞아 세계 뇌학회 주최로 3월 15일 한서대학교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안의대(순천향의대·사진) 교수는 “요가와 명상(지료명상)을 함께 하면 뇌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며 “명상을 통해 뇌의 활동을 관찰하면서 갖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동은 땀을 흘리고 장기를 움직이게 하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지만,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을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을 활발하게 한다”며 “명상과 요가의 훈련과정을 통해 고혈압, 스트레스 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재 기자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1> 마조 선사, 고향 할머니에게 한방 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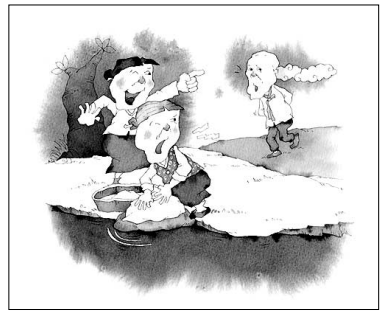
무렵지를 읽다가 보면 힘겨나 쓴다고 하면 ‘강호(江湖)의 고수’라는 호칭이 뒤따라 다닌다. 신경 좀 써서 만든 책은 어김없이 서문 맨 끝에 ‘강호제현의 절정을 바란다’는 말이 상투적으로 따라 붙는다. 강호라는 말은 ‘천하(天下)’라는 말이다. 강호라는 말의 어원의 주인공은 조사선의 실질적 완성자인 마조 스님이다. 그 시절 강서지방의 대표적인 인물은 마조 선사였고, 호남지방에서 가장 활약이 두드러진 사람은 석두 선사였다. 두 회상으로 공부인들의 왕래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에 이 두 선사를 찾아 뵙고 거랑을 하여 인가받지 못한 남자는 뭘 제대로 모르는 안목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었던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분위기가었다. 강서와 호남이 당시 모든 인재들의 집합지였던 것이다.

이렇게 천하의 인

왔고 상주하고 있던 대중이 천여명에 이르렀을 때 마조 스님이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소와 같이 점잖았고 눈빛은 언제나 호랑이 같았다. 그런 그에게 드디어 진짜 강적(?)이 나타났다. 무림의 고수도 아니고 강호제현도 아닌 어릴적 동네에 함께 살았던 할머니였다. 선종사에서 내로라하는 선지식들에게 가끔 이런 평범한 노파들이 나타나서 허를 찌르는 광경은 흔한 풍경이기도 하다. 마조 스님이 남악회암 선사에게 법을 얻고 나서 이름을 떨치던 중 고향인 사천에 한번 들렀다. 금의환향하니 모든 사람들이 “큰스님이 오셨다” “우리 마을에 인재났다”고 야단들인데 시냇가에서 빨래하던 이웃집 할머니의 한마디는 그야말로 환영사의 압권이었다.

“무슨 경사나 난 줄 알았더니, 뭐야! 이애는 마저 농기구집의 작은 아들 아니냐!” “????????”



늘 ‘평상심이 도’라고 말하던 마조 스님 아명 부르는 할머니 인사에 마음 ‘흔들’

제가 모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르지만 과거제도의 문란이었다. 응시하는 실력자는 많은데 합격자는 언제나 ‘이미 내정된’ 영종한 사람들이었다.

부패한 과거제도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과거장이 아니라 ‘선불장(選佛場)’으로 모여들게 만들었다. 관리를 뽑는 곳보다는 부처를 뽑는 곳이 더 인기가 있었다.

그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 마조 선사였다. 단하천연 선사와 방거사는 불교를 만나기 전에 함께 과거길에 올랐다. 가는 도중에 마음을 돌려 부처를 뽑는 선불장인 마조선사 회장으로 출가한 이야기는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준다.

당시의 대 스타인 마조 선사는 광장설상(廣長舌相)과 천복륜상(千輪輪相)을 갖추고 있었다.

즉 혀가 코를 덮었고 발바닥에는 범룡이 새겨져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부처님의 32상을 표현한 것이다. 법문을 매우 잘하였고 열심히 교화했다는 의미다.

그의 문하에서 백여명의 깨진 사람이 나

마조 선사의 황당해 하는 표정이 눈앞에 선다.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니 어찌 다나.

송대의 자료인 <오가정종장>1권에 그 원문이 나온다.

권군막환향(勸君莫還鄉 還鄉道不成就) 계면노파자(溪邊老婆子 喚久時時)

자네들에게 바라노니 고향에는 가지 말아라. 고향에 돌아가면 공부하기가 어렵더구나. 시냇가의 옆집 할머니가 어릴 때 나의 이름을 부르더군.

늘 ‘평상심이 도’라고 말한 그였지만 고향 할머니의 한마디에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원불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아빠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빠타 센터, 아빠타 마스터 김해균, 전화주시는 본래는 언제나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대구 혜광사 진일스님 제8회 선서화 작품 개인전, 오랜 세월 한결같은 마음으로 선사와 선서화를 통하여 국,내외에서 포교활동을 하여온 진일스님 선서화전, 한국최고의 선필 佛心(길이 11m), 달마도강도(길이 3m), 백두산 대흑호(길이 3m), 그리고 사찰건립 모금을 위하여 수백차단, 업장소멸, 소원성취를 이루는 거룩한 달마도 판매.